

# 트뤼도 총리 "미국 국경 재개방 신중 대처"

## 한 달 연장 전망

비필수 여행 금지 합의 21일 종료...캐나다 매체 "한 달 더 연장" 보도

캐나다는 미국과의 비필수 여행을 다시 허용하기 위한 양국 국경 재개방 문제를 신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CBC 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이날 일일 회견에서 양국 간 국경 재개방 문제에 대해 "우리는 미국을 포함해 모든 국제 여행을 재개하는 데 대해 매우, 매우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시사했다고 방송을 전했다.

캐나다와 미국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과 방지를 위해 상업적 운송과 필수 근로자 왕래를 제외한 관광·휴가 등 비필수 목적의 여행을 상호 금지하기로 합의, 국경을 통제해 왔으며 지난달 한 차례 이를 연장해 오는 21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가 캐나다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난 뒤에는 캐나다 밖으로부터의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 두 번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필수적 부분"이라며 경제 활동 재개를 점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캐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국경 문제



를 포함한 공동의 이해를 위해 지속적, 건설적 대화를 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뤼도 총리의 이날 발언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 활동의 조기 재개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CBC는 전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도 이날 하원 화상회의에 출석해 국경 재개방과 관련, "미국 측과 다음 단계에 대해 매우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전날 캐나다와 미국의 각 주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양국 국경 사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며 국경 통제를 언제 완화할지에 대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현지 언론은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경 통제가 내달 21일

까지 한 달 더 연장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 신문 글로브 앤드 메일은 양국 간의 대화를 아는 소식통을 인용, 캐나다가 미국에 30일 연장을 요청했으며 미 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 일부 주는 보건당국이 승인하기 전 미국과의 국경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에이드리언 디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보건장관은 전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든, 그쪽에서 캐나다로 오든 지금 여행객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시점에 방문객을 위해 국경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재 캐나다의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7만1천157명, 사망자는 총 5천28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중국산 KN95 마스크 리콜 명령

## 여과율 1% 불과



캐나다 보건부가 의료용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KN95 마스크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C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건부는 지난 11일 공지문을 통해 중국 업체 수십 곳에서 제작된 KN95 마스크가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히며 캐나다 내 의료용품 수입 및 배급업체에 제품 리콜 명령을 발령했다.

공지문은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 산하 산업안

전보건연구원(NIOSH)이 최근 실시한 검사결과 부분적으로 KN95 마스크가 "95% 여과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부는 캐나다에 유통된 KN95 마스크에서 기대되는 효과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부는 KN95마스크의 수입 물량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건부는 대기 중 미세먼

자를 95%까지 걸러내는 규격으로 KN95마스크를 의료 현장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중국 기준인 KN95 제품을 같은 규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NIOSH 검사 결과 일부 KN95 제품에서는 여과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까지 캐나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만 2278명, 사망자는 총 5409명으로 집계됐다.

# 코로나 단신

## 가계부채 위험 중앙은행 경고

중앙은행이 국내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은은 14일 브리핑에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과 금리인하 등이 어느 정도 경기 불황을 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기업의 현금 유동성 공급과 가계 수입의 급감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 위기가 경제 문제로 확산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파산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국내 가구 중 40% 이상이 대부분의 수입을 빚을 갚는데 쓰고 있다고 밝혔다.

## 마스크 안 쓰면 '우버' 못 탄다

차량공유 업체 우버(Uber)가 캐나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우버는 18일(월)부터 운전 기사, 승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코로나 지침을 13일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운전사와 승객은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승객은 앞좌석에 앉을 수 없다.

## 코로나보다 수퍼버그가 더 무섭다

"과도한 항균물질 사용으로 위험 증가"

코로나19 사태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수퍼버그에 대한 위험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캐나다 미생물학자들은 14일 이같이 밝히고 "수퍼버그 감염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실질적으로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의료계에 따르면 2018년에만 수퍼버그 감염으로 5,400명이 숨졌다.

수퍼버그란 기존의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신종 박테리아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70만 명이 사망하고 2080년에는 전 세계 인구 중 1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국내 미생물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항균물질들이 일상 생활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세균들의 내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 \* 매주 금요일 발행

연락처 : 전화 (403) 616-7755

Email: 회사대표 abjournal.ca@gmail.com

또는 albertajournal@gmail.com

www.abjournal.ca

고육의 맛을 같다

김치가 맛있으면 밥맛이 살맛난다.  
맛난 김치와 정갈한 반찬, 반조리식품이 준비돼 있습니다.

열무김치 3.6kg	부추김치	우영조림	부대찌개
배추김치 3.6kg	오이소박이	연근조림	감자탕
백김치 3.6kg	깍두기	마늘쫑무침	오삼불고기
총각김치 3.6kg	겉저리	무우말랭이	LA 갈비
나박김치 3.6kg	고추피클	쇠장조림	돼지갈비
동치미 3.6kg	갯잎절임	계란장조림	소불고기
맞춤김치 3.6kg	고추절임	오이지무침	떡볶이
파김치	호두멸치	김치해물전	

가족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찾는 김치! 직접 담그기엔 염두가 나지 않고 마트에서 사먹긴 부담스러우시나요? Red House에서 주문하세요. 진짜 엄마 손맛으로 집에서 정성스레 담그어 판매합니다.

모든 음식은 맛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전화주세요.

**Red House | 403.402.2774**

# Math Tutor - Alex

## 수학 · 물리 · 화학 개인 레슨

Math (10-20-30), Physics (20-30), Chemistry (20-30)

- 대상: 고등학생/영재학교 (GATE) 학생 환영
- 수업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레슨
- 교사 경력:
  - PhD in Electrical Engineering, U of C
  - 고등학교 수학 · 물리교사 교직원 자격증
  - 고등학생, 대학생 개인레슨 다년경험

전화: (영어) 403-282-9220 (한국어) 403-264-4426

이메일: bageorge@topnotchcanada.ca